

'사랑의 온도탑' 9년 만에 미달 위기

목표액 1%마다 1도 올라…30일 기준 96.9도
약 129억원 부족…미달 시 2010년 이후 처음
모금회 “쉽지 않은 상황…십시오으로 해야”

국내 대표 모금운동인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미달이 된다면 지난 2010년 이후 9년만이다.

3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96.9도다.

온도탑의 수은주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30일까지 모인 금액은 3976억6000만원이다. '희망 2019 나눔캠페인' 목표액 4105억원에서 129억원 가량

부족한 액수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이후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그 첫 해와 2010년 뿐이다. 2010년에는 모금회 비리가 터졌던 해이다.

'어금니 아래' 사건과 불우아동 지원단체 '새희망씨앗' 입장원의 기부금 유용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목표액보다 9억원 가량 초과 달성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지난해보다 목표액을 50억원 증액했고 같은 기간 지난해 모금액(3954억원)보다는 약 한다"고 전했다.



많다"면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등의 기부는 완료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액을 채우길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이날 자정에 완료된다.

공동모금회는 2월1일 오전 총 모금액수를 집계해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 예정이다.

경찰 "손석희 대표, 설 연휴 지나 소환 조사"

최근 폭행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는 설 연휴가 지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1일 이같이 밝히며 "아직 손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장소는 마포경찰서이고 조사 일정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 사건 혐의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미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2017년 4월16일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 관련 취재 종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가 김씨의)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려라'리며 손으로 톡톡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교통사고 대해서도 "경미한 사고였으며 상상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손 대표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교황청 고위 성직자, 10년 전 성추행 혐의로 사퇴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가 10년 전 고해성사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기톨릭 전문매체 내셔널 기톨릭 레지스터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신앙교리성 헤르만 기아슬러(53) 교육실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조사되고 있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기아슬러 신부는 지난 1993년부터 신앙교리성에서 근무해왔으며, 2009년부터 교육실장을 맡아왔다.

그는 10년 전 고해성사 도중 수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지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독일 출신 한 전직 수녀는 지난해 9월 "성적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고백이 있었다"고 밝혔고, 독일 지역 언론들이 교황청의 '헤르만 G.' 신부가 용의자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었다.

美 기록적 한파… '체감 기온' 영하 54도

북극 한파로 미국 중서부와 중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물아닥쳐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 중북부 미네소타 노리스 캠프에 이날 최저기온이 -44.4도까지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53.8도까지 떨어져 북극 지역보다 더 추운 기온을 기록했다.

기록적 한파로 전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카고는 이날 오에어 국제공항 지역 최저기온이 -30.6도, 체감온도 -45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밤에는 시카고 역대 최저 기온인 -32.8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 관측 사상 시카고의 역대 최저기온은 1985년 1월 기록한 -32.8도다.

체감온도 기준으로 시카고 서쪽 드칼브 지역은 -48.9도까지 하락했으며, 서부 시카고 -48.3도, 오로라 -47.8도를 각각 기록했다.

미 태평양연안 워싱턴주 홍역환자 40명으로

미국과 캐나다 보건당국이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가 40명에 이르렀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 날 미국 워싱턴주 남서부에서 38명의 확진환자가 확인 되었고, 한 명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다른 한 명은 시애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 가운데 2명은 워싱턴주 남서부에서 하와이로 여행했으며 그 곳에서 격리되었고 세 번 째 환자는 오리건주 벤드로 여행을 가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하와이에서 홍역에 감염된 신규 환자는 없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추가로 발생된 의심환자가 13명 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은 10세 이하 어린이들이다.

나이지리아 북부 무장세력 충돌… 60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란 미을에서 무장단체들이 잇따라 주민들을 공격, 민간인 60여명이 피살되고 수 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유엔의 스테판 두자리 대변인이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화 통신등은 두자리 대변인이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주 나이지리아의 란 미을에서 약 3만명이 이웃 카메룬으로 도망쳤으며 무장단체의 연속 공격을 피해서 은갈리와 마이두구리에서도 수 천 명이 대피했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이 보고해왔다"고 밝힌 것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 담당관들이 즉시 은갈리 지역에 구조팀을 파견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두자리은 설명했다. 란 지역은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무장 공격때문에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스스

죽어도 못푸는 恨…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소송 또 연기

작년 8월 항소 이후 3차례 연기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한 위안부 피해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오후 3시20분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3월14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항소장을 접수된 이후 접한 기일이 3차례 변경돼 아직 한 번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할머니 측에서 각자 사정으로 한 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일변경신청 없이 기일이 변경돼 재판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1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을 달라고 지난 2016년 8월 제기한 소송이다. 1심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 억엔의 상계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면은 견 시설"이라며 "그



지난달 30일 오후 김복동 할머니 별세 후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72차 수요집회에 김복동 할머니의 영정 앞에 꽃이 놓여 있다.

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서

뉴스스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대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 분에
안녕이라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 in
건강한 청년,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증기발견
제작자: 진인 민혁군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세 미만은 건강검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